





9. 다음은 입학 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자기 소개서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밝히고, 장점을 발휘한 사례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저는 제 장점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되어옵니다. 제게는 자기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억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 )

반면, 제 단점은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제물 같은 것을 기한에 쫓겨 급하게 하느라고 고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생활계획을 수첩에 적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에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그 다음날 밤에는 그날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랬지만 처음에는 40~50%이었던 실천율이 지금은 평균 80%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소중한 수첩을 잃어버려서 지금 무척 속이 상합니다.

- ① ㉠은 지나친 피동 표현이므로 '생각됩니다'로 바꾼다.
- ② ㉡에는 첫째 문단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한다.
- ③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부족하다는 것입니다'로 바꾼다.
- ④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랬더니'로 바꾼다.
- ⑤ ㉤은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10. 밑줄 친 어휘가 모두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 오늘이 몇 일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 ② [ 우리는 서로 바빠서 오랜동안 연락하지 못했다.  
정말 오랫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다.
- ③ [ 잠자던 아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났다.  
여름에는 열무김치에 보리밥을 비벼 먹는 것이 일품이다.
- ④ [ 상송세를 탄 우리 팀은 상대팀을 밀어붙였다.  
그것은 지금 필요 없으니, 저 구석에 밀어부쳐 놓아라.
- ⑤ [ 언니는 홀몰이 아니니까, 태아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해!  
내 친구는 부모형제 없는 홀몰이지만, 정말 씩씩하다.

11. <보기>를 충족시키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상황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버려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있다. 이에 권고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 조건  
· 완곡한 어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도록 할 것.  
· 인과 관계가 나타나도록 할 것.

- ①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당신도 오염됩니다.
- ② 쓰레기를 만드는 당신의 손을 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손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 ③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우리 주변이 아픕니다.  
주변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지 않을까요?
- ④ 쓰레기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주변 환경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 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에는 벌칙이 뒤따릅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ㄱ'.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ㄷ.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ㄱ'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ㄴ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제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ㄴ'는 주제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ㄴ의 '넉넉하시다'와 ㄷ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ㄴ과 ㄷ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  
비에야!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짝한 정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목 놓아 울리라.

┌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A]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 오장환, 「The Last Train」 -

\* 카인(Cain):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나) ㉠비가 오고 있다  
여보  
움직이는 비애를 알고 있느냐  
  
[B] ┌ 명령하고 결의하고  
      '평범하게 되려는 일' 가운데에  
      해초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나부껴서 밤을 모르고  
      언제나 새벽만을 향하고 있는  
      투명한 움직임의 비애를 알고 있느냐  
      여보  
      움직이는 비애를 알고 있느냐  
      순간이 순간을 죽이는 것이 현대  
      현대가 현대를 죽이는 '종교'  
      현대의 종교는 '출발'에서 죽는 영예  
      그 누구의 시처럼  
  
      그러나 여보  
      비오는 날의 마음의 그림자를  
      사랑하라  
      너의 벽에 비치는 너의 머리를  
      사랑하라  
  
      비가 오고 있다  
      움직이는 비애여  
  
      결의하는 비애  
      변혁하는 비애.....  
      현대의 자살  
      그러나 오늘은 비가 너 대신 움직이고 있다  
      무수한 너의 '종교'를 보라  
  
      계사 위에 올리는 곡괭이소리  
      동물의 교향곡  
      잠을 자면서 머리를 식히는 사색가  
      —모든 곳에 너무나 많은 움직임이 있다

여보  
비는 움직임을 제(制)하는 결의  
움직이는 휴식  
  
여보  
그래도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비가 오고 있는데!  
  
- 김수영, 「비」 -

(다)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릴 뿐 秋風惟苦吟(추풍유고음)  
온 세상에 지음(知音) 없구나.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  
창 밖에는 삼경에 ㉡비가 오는데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등불 앞에 마음은 만 리를 달리네.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 최치원, 「추야우중(秋夜雨中)」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속성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발견한다.
  - ② 부드러운 느낌의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설득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④ 명사로 끝나는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 여운을 남긴다.
  - ⑤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상을 전개한다.

14. <보기>는 (가)를 수업한 일부분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비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의지 표명	원인 판단	심화 탐구	결과적 인식
1연	2연	3연, 4연	5연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1연에서 화자는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단호한 어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 ② 2연에서 화자는 쓸모없는 '정춘'과 '병든 역사'가 비애의 발생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 ③ 3연에서 화자는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비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 ④ 4연에서 화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과의 만남을 통해 비애의 기원이 몹시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⑤ 5연에서 결국 화자는 자신이 비애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15.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에 없는 직유를 사용하고 있다.
  - ② [B]는 [A]에 없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지배적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는 ‘현대 사회’를 속도와 비애로 표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빨라지는 현대의 속도는 현대인에게 편리와 슬픔을 동시에 주었다. 즉, 살면서 속도와 결별할 수 없는 현대인은 비애의 감정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 시도 쉬지 못하고 속도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은 소외를 느끼며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김수영은 이 속도와 비애의 관계를 자연물인 ‘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결국 김수영은 이 시를 통해 현대인들이 도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① ‘비’라는 자연 현상을 생활 현실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 ② ‘새벽’은 ‘밤’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속도 경쟁이 없는 시간이므로 비애가 없는 시간이다.
- ③ ‘순간’은 ‘현대’가 ‘중고’처럼 맹신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인에게는 소외와 불안의 원인이다.
- ④ ‘현대의 자살’은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가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 ⑤ ‘비’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인 ‘휴식’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시상 전개의 기본 문장이 되고 있다.
- ③ ㉡은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은 창작 동기가 되고 ㉡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18. <보기>를 읽고 (다)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토황소격문」을 작성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방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28세에 신라로 귀국한다. 한림학사의 벼슬을 받은 그는 경세의 뜻을 펼치려고 하였지만 894년 올린 개혁 정책인 「시무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 최치원은 마흔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난세를 비판하여 관직을 내놓고 가야산에 은거하였다.

- ① ‘가을바람’은 세상에서 소외된 화자의 처지와 조용하여 쓸쓸함을 더하게 하는군.
- ② 1행과 2행, 4행의 끝에 쓰인 한자음 ‘음, 음, 심’은 화자가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리는군.
- ③ ‘지음 없구나’에는 화자의 재능과 포부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 ④ ‘만 리’는 화자와 세상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달리네’에는 경세가로서 이름을 날리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어.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탈은 조종자가 노출된 발에 얼굴탈을 얹고, 인형의 양팔에는 줄을 묶어 조종하면서 진행되는 전통 연희이다. 발탈의 외형은 하체는 없고 상체만 있으며, 인형의 팔은 긴 한삼을 끼고 있다. 조종자는 포장막 뒤에서 비스듬하게 누워, 내민 한 발로 얼굴탈을 조종하고, 손은 대나무와 끈을 통해 발탈의 상체를 조종한다. 발탈의 인물은 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극중 대사로 보아 생선 장사로 먹고 사는 인물이다.

발탈은 어찌 보면 인형극 같기도 하고, 또한 가면극 같기도 하다. 우선 발탈이란 명칭만 보아서 발에 탈을 씌워 논다는 점에서 가면극이지만, 탈을 조작하는 사람이 포장막 뒤에서 조종만 한다는 점에서 인형극으로 볼 수도 있다. 꼭두각시놀음과 비슷한 시기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탈의 놀이판은 가로 130cm, 세로 1m 정도의 직육면체로 위와 뒤를 터놓고 앞과 옆을 막아놓은 ‘ㄷ’자 형태이다. 연희는 포장막 앞에 어릿광대와 발탈꾼이 재담을 나누며 극을 진행하는데 다른 탈놀이에 담긴 내재적 성격과 같이 당시 것놀였던 민중들의 애환을 꾸밈없이 담고 있다. 여기에 악사의 반주, 어릿광대와 관중의 추임새 등이 총체적으로 어울리며 전개된다.

발탈의 상대인 어릿광대는 남루한 옷차림에 상투머리를 하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등장하여 발탈 오른쪽 앞에 위치한다. 이 인물은 발탈의 보조역으로 발탈과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히 추임새를 넣어준다. 그러면서 극의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 극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절하는 연출자, ㉠관중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자, 재담으로 상대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자의 역할 등을 두루 소화한다.

발탈의 연희는 발탈이란 상반신 탈인형과 어릿광대라는 재담꾼이 등장해서, 두 이질적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방식이다. 그래서 발탈은 다른 가면극이나 인형극에 비해 등장 인물의 수가 적고, 갈등 관계가 단조로우며, 춤사위가 정적이고 역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재담이 풍부하며, 실내에서 공연되기 때문에 연희자와 청중과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 상호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풍자와 해학이 풍부한 2인 재담 방식의 발탈은 이러한 연희의 특이성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 79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19. ‘발탈’을 소개하는 기사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 유일의 전래 인형극
  - 백성들의 속마음 담아 부조리한 사회 비판
- ② 꼭두각시를 모태로 한 창작극
  - 관객이 참여하는 열린 무대
- ③ 관객을 매료시킨 화려한 춤사위
  - 인형극과 가면극의 성격 두루 갖춰
- ④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열린 무대
  - 발탈과 어릿광대가 노는 특이한 전통 연희
- ⑤ 다양한 인형들의 움직임에 익살이 묻어나
  - 상체 인형과 어릿광대가 만드는 전통 탈놀이

20. <보기>의 ㉠~㉣ 중,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보 기>—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까지 회자 죽 오동수북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이 낚시걸 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용두 해금,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 위 글을 읽고 심화학습으로 ‘꼭두각시놀음’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발탈’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꼭두각시놀음은 고려시대부터 양반과 위정자들의 얼굴을 바가지로 만들어 당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서민층이 즐겨 놀았던 민속 인형극이다. 무대는 사망에 기동 네 개를 세우고 까만 포장을 쳐 등장하는 인형에 초점이 모아지도록 한다.

조종자는 포장막 안에 앉아 인형의 하반신을 잡고 인형들을 움직이며, 악사들은 포장 밖에 앉아 연주하면서 인형의 말을 되받아 주는 산발이 역할을 겸한다. 연회는 채록본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주인공인 박첨지의 일대기를 줄거리로 하여 대화와 몸짓, 노래, 춤사위 등을 진행하면서 등장인물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어서 연극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기준 \ 종류	발탈	꼭두각시놀음
① 무대 장치	있음	없음
② 조정 방식	누워서 인형에 줄을 매어 조정함	앉아서 인형의 상반신을 잡고 조정함
③ 발생 시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④ 갈등 양상	단조로움	첨예함
⑤ 연주자	어릿광대	산발이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도령이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안채로 들어간다. 사람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적으니, 이 도령이 울며 어머니에게 춘향의 일을 청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나온다. 춘향 집으로 향하는데 설움은 기가 막히나 길에서 울 수 없어 참고 견디려니 속에서 두부장 꿇듯 하더니 춘향 문전에 당도하니 모든 슬픔이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활각 쏟아진다.

“어푸 어푸 어허.”  
 춘향이 깜짝 놀라 활각 뛰어 내달으며,  
 “애고, 이게 웬일이오.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소. 길에 오시다가 무슨 분함 당하셨소. 서울에서 무슨 소식 왔더니 조부모 상(喪)을 당하셨소. 짐작으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오.”

춘향이 이 도령 목을 담쑥 안고 치마 자락 건어 잡고 옥안(玉顏)에 흐르는 눈물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며,  
 “우지 마오. 우지 마오.”

울음이란 것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게 되는 것이니, 이 도령 기가 막혀 더욱 쉽게 운다. 춘향이 화를 내어,  
 “여보, 도련님. 우는 입 보기 싫소. 그만 울고 까닭이나 말하십시오.”

“사또께서 동부승지하여 계시단다.”  
 춘향이 좋아하여,  
 “택의 경사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운단 말이오.”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아니 답답하냐.”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로 알았겠소. 어찌 함께 가기를 바라리오. 도련님이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팔 것 팔고 나중에 뒤따라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내 말대로 하게 되면 구차하지 않고 좋을 것이오. 내가 올라가더라도 도련님 큰댁으로 가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니 큰댁 가까이 조그마한 집, 방이나 두엇 되면 족하오니 남몰래 사정 살펴 사 두소서. 우리 식구 가더라도 공밥 먹지 아니할 터이니 그렇저렇 지내다가, 도련님 나만 믿고 장가 아니 갈 수 있소? 부귀하고 임금 총애 받는 재상가의 요조숙녀 가리어서 둘이 함께 아침 저녁 부모 안부 묻더라도 아주 잊지는 마음 소서. 도련님 과거 급제하여 벼슬 높아 외직으로 나가게 되면, 새로이 임관되어 부임 길 떠날 때에 첨으로 내세우면 무슨 말이 되오리까. 그리 알아 조치하오.”

“그게 이를 말이나. 사정이 그러하여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쭙고 ㉠**대부인** 앞에 여쭙었더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기생첩 두러 데려간다는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가 벼슬도 못한

[A] 다 하니 이별이 될 수밖에 없구나.”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그 즉시 활각 성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휘돌리며 붉으라푸르라, 눈을 간간지런히 가늘게 뜨고, 눈썹이 곳곳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뽀도독뽀도독 갈며, 온 몸을 아픈 입 틀 듯

하며, 매가 꿩을 차듯이 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오.”  
 활각 뛰어 달려들어 치마 자락도 와드룩 좌르룩 찢어 버리고 머리도 와드룩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찌요. 이것도 쓸데없다.”

면경·체경·산호머리꽃이 다 두리치 방문 밖에 당당 내던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 탁탁 치며 털고 돌아앉아 신세를 한탄 하며 운다.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 무엇하며 단장한들 누구 눈에 사랑받을꼬. 몹쓸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될 줄 모르고 부질없는 이내 몸, 허망하신 말씀으로 앞날 신세 버렸구나. 애고애고 내 신세야.”

(중략)

춘향이 이렇게 자지러지게 싫게 올 때 춘향 어머니는 사정도 모르고,

“애고, 저것들 또 사랑 싸움이 낫구나. 어, 참 아니꼽다. 눈 구석에 쌍 가래뿔 설 일 많이 보겠네.”

하며 아무리 들어도 울음이 끈질기다. 하던 일 밀쳐 놓고 춘향이 방 미단이 문밖으로 가만가만 다가가서 한참을 들어 보니아무래도 이별이다.

“허허, 이것 별일 낫다.”

㉠월매가 두 손뼉 땡땡 치며,

“허허, 동네 사람 다 들어 보오. 오늘날로 우리 집에 사람 둘 죽습네다.”

두 칸 마루 섭적 올라 미단이 문을 두드리며 우루룩 달려들어 춘향이 앞에 주먹을 겨누면서,

“이년 이년, 썩 죽어라. 살아서 쓸데없다. 너 죽은 시체라도 저 양반이 지고 가게 어서 썩 죽어라. 저 양반 올라가면 누구 간장을 녹이려느냐. 이년 이년, 말 듣거라. 내가 날마다 말하기를 후회되기 쉽스니라. 도도한 마음 먹지 말고 여염 사람 가리어서 형세·지체 너와 같고, 재주·인물이 모두 너와 같은 봉황의 짝을 얻어 내 앞에 노는 양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르지 않았더냐. 마음이 교만하여 남과 유난히 다르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등장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속어를 사용해 등장 인물의 격양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성어·의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등장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23.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식의 임신출세를 우선시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
- ③ ㉠은 현실에 순응하고, ㉡은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 ④ ㉠은 신분 차이를 인정하고, ㉡은 신분 차이를 초월하고 있다.
- ⑤ ㉠은 양반의 체면을, ㉡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4. 위 글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연출진이 협의한 내용이다. <보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문제: 극중 춘향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 연출 방향: 원작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춘향의 급격한 행동 변화를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춘향에게는 갑작스런 이별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음을 부각시켜 보자.
- ② 춘향의 행동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춘향의 본모습이었음을 나타내자.
- ③ 춘향의 행동은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담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 ④ 춘향이 이 도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자.
- ⑤ 춘향의 행동은 이 도령을 통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하고자 했던 욕구의 좌절이 실질적 이유라는 것을 드러내자.

25. [A]에서 이 도령의 말을 들은 춘향의 심정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청천벽력(靑天霹靂)                      ② 전전공공(戰戰兢兢)
-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④ 자승자박(自繩自縛)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자 제임스 호우웰은 속담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형식의 간결성’, ‘지적인 감각’, ‘재미’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언급일 뿐 구체적이지 못하다. 적어도 속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속담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기능적인 의미 전달을 해야 한다. 또한 상징적, 직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 쾌감과 실감의 표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속담의 구조면에서 먼저 주목할 사실은 복문 형태의 속담에서 전·후구가 의미체와 의미체의 단순 결합을 한 경우에 전·후를 바꾸거나 심지어 둘 중 하나만 써도 속담의 중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은 하나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 앞뒤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속담의 전·후구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고는 주제 의미가 표시되지 않아 속담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라는 속담은 반드시 둘이 함께 있을 때에만 자가 한 일보다 더 가혹한 값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속담을 언어 기능 면에서 살펴보면, 주제 의미가 언어 재료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상징적 기능과 주제 의미가 언어 재료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전달되는 서술적 기능이 있다. 전자는 개념에 의한 산문적인 해석으로는 주제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속담 구조 전체가 하나의 기호(記號)가 되어 속담에 동원된 언어 재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실을 지시하는 경우로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이 이에 속한다. 후자는 하나의 서술에 다른 하나의 서술이 기능적인 구조로 결합한 경우이다. 주제 의미는 문맥 속에 그대로 서술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서술이 아닌 문장의 전후 구조에 의하여 기능화된 서술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나 ‘물은 건너보아야 안다.’는 단순한 서술 형식이지만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로 되면 그 구조는 기능화되어 전체가 하나의 속담이 되는 것이다.

속담은 추상 개념을 구체적인 사실로, 고도의 논리를 평이한 직관으로, 범상한 설명을 돌발적인 상징으로 드러냄으로써 쾌감을 주고 절실한 표현 효과를 낸다. 예를 들면 ‘말을 조심하라.’는 설명은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는’ 경이(驚異) 속에 함축되고, (“ ㉠ ”) 속에 실감되는 것이다.

26. 위 글에 쓰인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원인을 제시한 후 해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7.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내 말은 남이 한다.’와 ‘남 말은 내가 한다.’는 단순한 서술 형식이지만 결합한 전체는 하나의 속담이 되는군.
- ②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견문(見聞)이라는 주제 의미를 생각할 때, 상징적 기능을 가진 속담이군.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전·후구가 결합하지 않더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겠군.
- ④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요 가재는 게 편이다.”는 단순 결합을 한 형태로 동원된 언어 재료만 다를 뿐, 주제 의미는 같군.
- ⑤ “산 입에 거미줄 치랴.”는 사람은 먹고 살게 마련이라는 뜻을, 거미가 사람 입에 줄을 친다는 놀랍고 신기한 일로 표현했기 때문에 속담이 되는군.

28.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말만 귀양 보낸다.
- ②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 ③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⑤ 말은 해야 맞고 고기는 씹어야 맞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28. 옥화네 집 마루

옥화와 오 노인이 마주 앉아 있다.

**오동운** 스님 말씀이 옳은 말이여, 계연이를 내가 다리고 떠나야제……어린것들한테는 이런 일 저런 일 알릴 것 없구…….

**옥 화** 휴- 우짜다가 이렇게 됐을까……하느님도 무심하시제……참말로 애통터져 죽겠네.

**오동운** (㉠술잔을 기울이고) 내가 죄 많은 놈이여. 애당초 찾아온 것이 잘못이었제……허지만 그때야 어디 이렇게 내 핏줄이 있을 줄 알았간디……그저 행여나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을 염치 불고하고 계연이나 말아 달라고 사정할 생각이었는디…….

**옥 화** …….

# 129. 강변

계연이가 돌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역구풀을 쥐어뜯고 있다. 등 뒤에 성기가 다가선다. 돌아다 보고 반기며.

**계 연** 오메야 오빠! (일어서서 턱밑에 바싹 다가서며) 오빠!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노있는 것이여?

**성 기** 어무니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계 연** 그렇다구 안 오른 난 어찌라구, 보구 싶어 툭 죽겠는디!

**성 기** 나무 기어이 절에서 배겨 내려구 했지만도 너가 보구 싶어서 왔다.

(성기, 계연을 끌어 안으려다 슬며시 손을 내린다.)

**계 연** ……?

**성 기** 니 말이 맞다. 장가들기 전엔 니 손목두 잡지 았을란다.

(이 때 옥화가 부르는 소리.)

**옥 화(ᄇ)** 계연아! 계연아!

**성 기** 와 또 불러 썼노, 어무니 요새 참말로 알긔데이.

**계 연** 정말 이상해졌어라우.

**성 기** 들어가 봐. 내일은 장날이니까 일찍 오꼬마.

**계 연** 오빠 그람 꼭!

(성기 끄덕인다. 계연 돌아서며 쪼르륵 달려간다. 지켜 보다가 발길을 돌리는 성기)

# 130. 옥화네 집

오동운과 옥화가 앉아 있다. 계연이가 온다.

**동 운** 계연아 들어가서 짐 챙겨라……내일 아침엔 일찍 떠나야 한다.

**계 연** 예?

**동 운** 그동안 아짐씨 신세를 너무 많이 졌다!

(계연, 구원을 청하듯이 옥화를 본다.)

**옥 화** 나는 너를 딸 삼아 데리고 있구 싶었지만 아버지가 마다구 하시는구나. 생업이 술장수니 굳이 붙들 수도 없고.

**동 운** 갈 사람은 가야제. 만났다 헤어지구 헤어졌다 만나구 그러는 것이 인간사니라.

(계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를 푹 떨구고 방으로 들어간다. 마주 보는 옥화와 오동운.)

# 131. 방 안

계연, 옥화가 준 옷가지와 ㉢고무신을 꺼내 놓고 들여다본다. 고무신을 집어 들고 불에 비비며 눈물이 펄펄 쏟아진다.

# 132. 마루

눈을 지그시 감고 통소를 물고 있는 오동운. 그의 구슬픈 심정을 담고 가락이 흐느낀다. 통소를 부는 동운. 돌아 앉아서 눈물을 닦는 옥화. 달을 쳐다보며 통소를 부는 동운.

# 133. 인서트

달이 흐르고, 달과 함께 통소의 가락이 흐느끼고.

# 134. 강물

강물에 아침 해가 비치면.

# 135. 쌍계사 산문, 길

산문을 나와 달려 내려오는 성기. 길을 달려 오는 성기.

# 136. 옥화네 집

동운 (짐을 지고 일어서며) 그림 아잠씨.

옥화 예……혹시 지나는 길이 있거등 꼭 들리시소, 예.

(동운 끄덕인다.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 계연이는 성기를 보자 갑자기 생기를 띠며 발짝 일어난다.)

계연 아- 오빠!

옥화 성기야,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성기 그 자리에서 천 채 표정이 굳어진다.)

동운 아들이 참 잘 생겼오.

성기 …….

옥화 계연이 아버지시다. 어젯밤에 오셔서 그 길루 떠나려고 하시는 걸 내가 하루 더 쉬어 가라고 만류했었다.

(쇠뿔치로 얻어 맞은 듯 멍하니 서서 계연이만 바라보는 성기. 계연이도 애걸하듯 호소하듯 붉은 눈으로 성기만 바라다본다.)

동운 (옥화에게) 그림 편히 계시오. 인연이 있으면 또 볼 터이지.

옥화 아가 잘 가거라.

(돈이 든 @꽃주머니를 계연의 보따리에 넣어 준다. 그러자 계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한다. 더욱 슬프게 느껴 우는 계연. 성기 호소하듯 옥화를 본다. 옥화 못 본 척하고 계연의 물결 같이 흔들리는 어깨를 쓸어주며.)

옥화 아가 울지 마라. 인자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계연 울음을 그치고 성기를 돌아다 본다.)

계연 오빠!

성기 …….

계연 (절망적인 체념으로) 오빠! 편히 사시오.

성기 …….

(꿈을 깬 듯 계연의 앞으로 몇 걸음 걸어 오다가 다시 화석처럼 발이 굳어 버린 채 서 버린다. 계연 획 돌아서서 달려간다. 주춤주춤 따라가다가 나무를 짚고 선다. 오동운과 계연의 뒷모습이 멀어져 간다. 지켜보고 서 있는 성기. 성기, 짚고 있는 @나뭇가지를 우지끈 꺾어 들고 핵 돌아선다.)

옥화 (놀라며) 성기야!

(우뚱뚱 달려들어 술청을 닦치는 대로 두들겨 부순다.)

성기 그만뒀요, 이까짓 거 다 그만뒀요.

옥화 성기야! 성기야! 성기야!

(다 때려 부수고 나서 허청허청 걸어나오는 성기.)

옥화 성기야! 니가 와 이라노, 니 실성했나?

(슬픈 눈으로 옥화를 바라보던 성기, 나무토막처럼 푹 꺼져버린다.)

- 최금동·김강윤 각색, 「역마」-

29.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성기는 중심 사건의 내막을 어렵곳이 짐작하고 있다.  
ㄴ. 동운은 진실을 감춘 채로 상황을 종결지으려 하고 있다.  
ㄷ. 계연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ㄹ. 옥화는 주인공이 기대하는 바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30.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영화 속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소재를 통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이 소재는 대상에 대한 연민과 추원, 상황에 대한 서운함과 안도감이라는, 인물의 미묘하고 복합적인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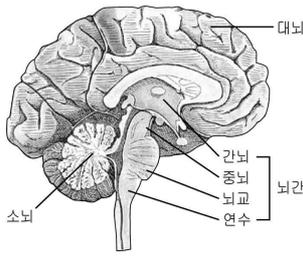
3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128의 인물들은 강경한 어조로 빠르게 말함으로써 인물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 129에서 옥화는 화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인물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 130에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 131에서 인물이 보여주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
- ④ # 133과 # 134는 사건 진행을 위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135에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에는 기대와 설렘이 드러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벨기에 RTBF 방송은 1983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론 하우스베이 침대에 누워 있는 23년 동안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첨단 장비로 론 하우스베이의 두뇌를 검사한 결과,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던 뇌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간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다. 대뇌는 전체 뇌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사고나 추론과 같은 복잡한 인지 능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뇌는 대뇌 아래, 뇌간 뒤쪽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고, 시작된 운동의 연속적인 활동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뇌간은 간뇌, 중뇌, 뇌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을 담당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뇌는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문제로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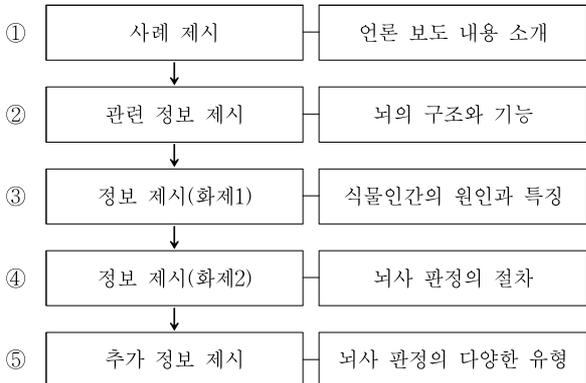
식물인간의 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외상이 가장 많다. 대뇌의 표

층부를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으면 운동 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과 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로, 운동, 감각,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으며 의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밖에 견디지 못한다.

반면,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뇌사나 식물인간은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지만 뇌사는 뇌 전체나,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이 정지되어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상태에 놓인 환자를 인공호흡기나 약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도록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개 폐와 심장의 기능이 나빠져 그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편, 어떤 상태를 뇌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입장이 있다. 그 하나가 기능사와 기질사에 대한 것이다. 기능사란 뇌 순환은 유지되고 뇌 세포도 살아 있지만 뇌의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를 말하고, 기질사는 뇌 순환이 정지되고 뇌 세포도 죽기 시작했거나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뇌 전체의 기능 정지를 뇌사(전뇌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뇌간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소실을 뇌사(뇌간사)로 보는 입장도 있다.

32. 위 글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33. 위 글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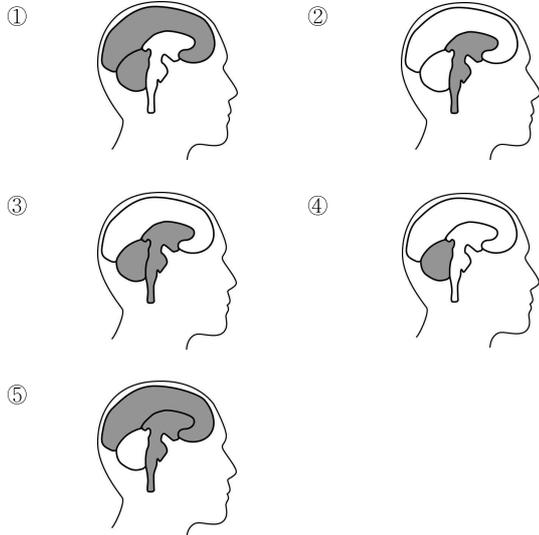
술을 마시면 맨 먼저 대뇌피질이 마비되면서 사고와 판단이 느슨해진다. 그러면서 평소 대뇌피질에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동물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변연계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그 결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 술의 양이 늘어나 알코올의 영향이 더욱 미치게 되면 몸을 비틀거리거나 일어서려고 해도 금방 쓰러지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호흡 장애와 심장 박동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 ① 알코올은 소뇌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알코올은 대뇌변연계 기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③ 음주로 인한 대뇌피질의 마비는 대뇌 일부의 기질사로 볼 수 있다.
- ④ 과도한 음주는 뇌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⑤ 음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부분은 뇌의 다른 영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34. 론 하우벤의 교통사고 직후 상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당시 의료진의 판정 근거가 됐을 만한 뇌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 환자 : 론 하우벤  
 • 나이 : ○○세  
 • 사고일시 : 1983년 ○월 ○○일 ○○시

■ 기능이 상실된 부분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정립한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선비는 사회의 지도 계층으로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 ‘선비’라는 말은 ‘사대부(士大夫)’의 신분에 속하면 아무에게나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에게 존경의 뜻을 실어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같고 닮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비는 벼슬길에 나가든 산림에 은거하든 상관없이 항상 자신을 선비로서 다듬어야 하는 임무를 지닌다. 선비는 조정에서 임금의 정치를 보좌할 때 선비다운 기개를 발휘하여, 권세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에 맞서,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 혹 벼슬하려는 뜻을 버리고 산림(山林) 속에 은거하여 ‘처사(處士)’로서 살아가더라도 유교의 도를 강론(講論)하여 밝히고 수호하는 임무를 지닌다. 그리고 선비는 자신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항상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생활의 신조로 삼아 세속적·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확고하고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비는 이렇게 유교적 도덕 규범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들을 교화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이다.

선비의 임무가 이렇게 중대하니 선비는 선비로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비가 자신을 다듬어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식견(識見)을 깊고 바르며 확고하게 정립해 가는 것이다. 즉 선비는 독서를 통해 이치와 의리를 깨닫고 밝혀서 마음에 깊이 젖어들게 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선비의 학문은 결코 지식의 양적 축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천의 힘, 행동의 원리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수양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러운데도 굳세고 흔들리지 않게 확립하는 것이다. 선비는 봄바람처럼 온화한 인품과 가을 서리처럼 엄격한 신념, 즉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선비의 인품과 판단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 공부를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비의 자기 수련 과정으로서 학문과 수양은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평생을 지속해 가는 과업이다. 따라서 선비는 평생 동안 독서를 쉬지 않는 ‘독서인’이며, 독서를 통해 진리의 근원을 통찰하고 현실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발견해 내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35.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비의 이상과 한계
- ② 선비 의식의 역사적 배경
- ③ 선비의 임무와 수련 방법
- ④ 선비 정신의 현대적 의미
- ⑤ 선비의 역사 의식과 실천 방법

36.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비는 학문적 탐구와 육체적 수련을 병행하였다.
- ② 선비가 한번 성취한 명성은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 ③ 선비의 지도적 지위는 통치 권력의 이념과 관련이 없다.
- ④ 선비는 도덕적 수양보다 사회적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다.
- ⑤ 선비는 대중의 교화를 위해 술선수법의 생활 태도를 실천했다.

37.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조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瀟灑)한데,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往來) 풍류를 닐러 므슴할고.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페 잇네.  
 ㉤녀던 길 알페 잇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 이황, 「도산십이곡」 중에서 -

- ① ㉠을 통해 화자의 삶이 독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는 학문 연구의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줘.
- ③ ㉢를 통해 화자가 위정자와 처사를 병행하면서도 풍류를 동경했음을 알 수 있어.
- ④ ㉣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존경받는 인물이겠군.
- ⑤ ㉤는 이치와 의리를 깨닫고 밝히는 진리 탐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

38.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친구들끼리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 ② 올해 우리 학교는 학교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 ③ 농담 한 마디가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 ④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드셨다.
- ⑤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글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들어 주셨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은 흐르나 소리도 없다. 수도국 다리를 빠져, 청류벽을 돌아서는 비단필이 훌쩍 펼쳐진 듯 질펀하게 깔려 나갔는데, 하늘과 물은 함께 저녁놀이 물들은 아득한 장미꽃밭으로 사라져 버렸다. 연평정 앞으로부터 까맣까맣 달려 있는 매생이와 수상 선들, 하나도 움직여 보이지 않는다. 끝없는 대동벌에 점점이 놓인 구릉들과 함께 자못 유구한 맛이 난다.

현은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고 저고리 단추를 여뒀다. 단풍은 이제부터 익기 시작하나 날씨는 어느덧 손이 시리다. ‘조선 자연은 왜 이다지 슬퍼 보일까?’

①현은 부여에 가서 낙화암이며 백마강의 호젓함을 바라보던 생각이 난다.

현은 평양이 10여 년 만이다.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새로 가보고 써야, 스케치를 해와야 하고 버리기만 했지, 한 번도 그래서 와보지는 못하였다. 소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친구들도 가끔 놀러 오라는 편지가 있었다. 학창 때 사귄 벗들도, 이곳 부회위원이요 실업가인 김순도 있고, 어느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삼도 있긴 만, 그들의 편지에 한 번도 용기를 내어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받은 박의 편지는 놀러 오라는 말은 한 마디도 씌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때, 놀러 오라는 말이 있던 편지보다 오히려 현의 마음을 끌었다.

‘내 시간이 반이 없어진 것은 자네도 짐작할 걸세. 편안하긴 허이. 그러나 전임으론 나가 주고 시간으로나 다녀 주기를 바라는 눈칠세. 나머지 시간이라야 그리 오래 지탱돼 나갈 학과 같지는 않네. 그것마저 없어지는 날 그때 아주 그만뒀 버리려고 아직은 찌싹찌싹 붙어 있네.’

하는 사연을 읽고는 갑자기 박을 가 만나 주고 싶었다. 만나야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 전보만 한 장 치고 훌쩍 떠나 내려온 것이다.

②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짙은 지 오래여서 터부룩한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찌싹찌싹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척 않게 여기는, 찌싹찌싹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③현은 박의 그런 찌싹찌싹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있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 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구석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고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수에게 물어 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릿수건이었다. 운전수에게 물으니 그는 없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고,

“거, 잘 없어졌죠. 인전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우 자긍하는 말투였다.

[A]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릿수건이 늘 보기 좋았다. 현은 단 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없힌 댕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량한 사투리와 함께 ‘평양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제 고장에 와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주는 것이었다.

(중략)

“아닌 게 아니라 자네들 이제부터 실속 채려야 하네.” 하고 김은 힐끗 현의 눈치를 본다.

“어떻게 채려야 실속인가?”

“팔릴 글을 쓰란 말일세, 자네들 쓰는 걸 이제부터 누가 알아야 읽지 않나? 나두 가끔 자네 이름이니 좀 읽어 볼 가 해두 요미 니쿠컷(읽기 힘들어서)……도모 이강(도대체가 안돼)…….”

[B] “아니꺼운 자식…… 너희 따윈 안 읽어두 좋다. 그래 방향 전환을…… 뭐……어디 가 글 쓰는 놈이 선견이구 어찌구 하는구나? 똥내 나는 자식…….”

“나니?(뭐야)”

김이 빨근해진다. 김이 빨근해지는 바람에 현도 다시 농담기가 걸히고 눈이 뻘쩍 빛난다.

“더러운 자식! 나닌 무슨 말라빠진…….”

하더니 현은 술을 깨려고 마시던 사이다 킴을 김에게 사이 다째 던져버린다. 깨지고 튀고 하는 것은 유리병만이 아니다. 기생들이 그리로 쏠린다. 보이들도 들어온다.

④“이 자식? 되나 안 되나 우린 이래 배두 예술가다! 예술가 이상이다. 이 자식…….”

하고 현의 두리두리해진 눈엔 눈물이 핑 어리고 만다.

“이런 데서 뭘……이 사람 취했네 그려, 나가 바람 좀 쐬세.” 하고 박이 부산한 자리에서 현을 이끌어낸다. 현은 담배를 하나 집으며 복도로 나왔다.

“이 사람아? 김 군 말쑥을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뭐가?”

“후…….”

“그까짓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나 보이…자네 들어가보게…….”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섰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중이처럼 번뜩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이상견빙지屨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깨인다. 저고리를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려 하나 성냥이 없다.

⑤‘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

-이태준, 「패강행」-

\* 패강: 대동강의 별칭임.

3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형식의 서술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객관적 관점을 견지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들의 상반된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역사적 의미가 유사한 공간을 사용하여 시대적 상황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 상대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의 가치관을 공박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주역의 문구를 통해 다가올 시련을 예상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인물이 처해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는 두 인물의 대립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향이 [B]의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④ [B]는 [A]에 나타나는 인물의 태도로 볼 때, 계획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현실 극복을 위한 인물의 내적 의지가 나타나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인물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물은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건 전개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물의 유형을 ‘문제적 인물’과 ‘훼손된 인물’로 분류한다면 먼저 ‘문제적 인물’은 훼손된 세계에 대립하는 예외적 인물이며 진정한 가치 추구 과정을 통하여 작가가 제기하려는 소설의 의미 형성 중심에 놓이는 인물이다. 반면 ‘훼손된 인물’은 환경의 논리에 집착하여 그 타락상을 그대로 대표하는 인물이다.

	유형	인물	근거
①	문제적 인물	현	고유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닥쳐올 위기를 예감함으로써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②	문제적 인물	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일관된 태도를 통해 시대와 대립하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③	문제적 인물	박	자신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의 중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④	훼손된 인물	현	부정적 시대에 편승해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통해 작가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훼손된 인물	김	당시 상황에 따르도록 ‘현’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여 타락한 인물로 전락시켰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좋은가’가 고민이라면 역사학자 토머스 플러는 “오늘의 달걀보다 내일의 닭이 더 좋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작가인 사무엘 존슨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적게 소비하라.”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어떻게 대답할까?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돈을 ㉠기반으로 한 소비와 그 소비를 통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궁극적 만족이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고민은 ‘얼마나 소비할까’라는 걱정과 다르지 않다. 만약 평생 벌 수 있는 수입을 알 수 있다면, 죽는 순간에는 번 돈을 다 쓰고 남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다 쓰지 못할 재산을 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의 ‘토머스 플러’와 ‘사무엘 존슨’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리적 소비가 된다. 즉 ‘현재와 미래에 얼마만큼 소비해야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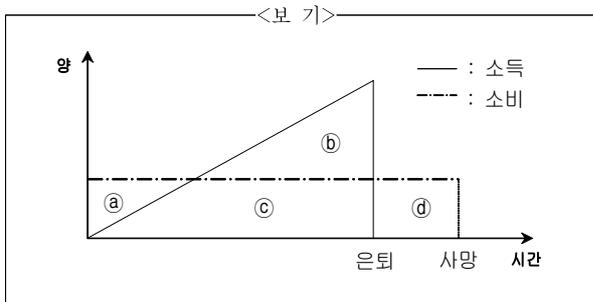
그래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결정하려면 개인이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직장을 얻기 전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면 평균 근무 기간 및 연봉을 알 수 있고 매년 오르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소득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최적 소비량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에 **㉔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평생 소득은 주어져 있는데 현재 많이 소비하면 미래에는 조금밖에 소비할 수 없다. 만약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할 양의 일부를 남겨 둔다면, 그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라는 추가 수입을 가져다준다. 미래에는 원금에 이자의 증가분만큼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소비를 줄이는 데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보다 현재 눈앞의 사건에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건네면서 “오늘 줄까, 내일 줄까?”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대부분은 ‘오늘 달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때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고통도 먼저 경험하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를 미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시간선호’라고 부른다. 따라서 **㉗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미래를 위해 이자 수입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소비의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자 수입과 시간선호의 효과가 **㉔상쇄**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주는 각각의 만족만 생각해 최적 소비량을 결정하면 된다. 결국 평생을 **㉔고려한** 합리적 소비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래 모두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평생 동안 소비를 고르게 나눠서 하는 것이 젊은 시절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란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소비할 만큼의 소득이 없는 시절에는 ㉔만큼 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 ② ㉗가 많아지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의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③ ㉗와 ㉔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으로 이자 수익을 포함한다.
- ④ ㉔, ㉔, ㉔의 합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쓰게 될 전체 소비량에 해당한다.
- 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㉗가 ㉔와 ㉔를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

44. ㉗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사장은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 직원의 건강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 ② 최 이장은 제작년에 좋은 가격을 받은 고추를 올해 더 많이 심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 ③ 정 과장은 5년 후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요량으로 월급을 꼬개어 주택 마련 적금을 붓고 있다.
- ④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박 부장은 신문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투자할 기업을 늘 살펴본다.
- ⑤ 이 과장은 결혼 10년을 맞이하여 모아둔 동전을 무료 급식소에 기탁하고 하루 동안 급식 봉사 활동을 하였다.

4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비판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 재해나 질병 등을 대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 ② 미래소비의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소비를 줄이라는 것은 현재 소비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거야.
- ③ 소비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심하게 변할 때도 많은데, 매일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 ④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 평생에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야.
- ⑤ 이자율이 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의 이자 수익이 시간선호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46. ㉑~㉔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㉒: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 ③ ㉓: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④ ㉔: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짐.
- ⑤ ㉕: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함.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세대 이동통신 시대로 들어서면서 2세대와 다른 특성 중 우리에게 **㉔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 이것은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하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으로, 3세대 단말기에 USIM 칩만 갈아 끼우면, 정보의 손실 없이 여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관리 및 인증 역할을 수행하는 USIM은 소형 CPU와 메모리로 구성된다. CPU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키 값을 비교·연산하는 암호화 기능을 담당하며, 메모리는 각종 개인 정보 및 상용 메시지를 저장하고, 각종 부가 서비스를 위한 저장 공간으로 이용된다. 메모리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멤버십카드 등의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며, 특히 ‘오버 디 에어(OTA: Over the air)’라는 기술을 통해 뱅킹이나 카드 서비스 승인만 받으면 별도의 다른 칩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무선으로 서비스를 휴대전화에 탑재

할 수 있다.

USIM 저장 용량은 144KB로, 이 중 30KB 정도가 부가 서비스를 탑재하는 데 사용된다. 이론상으로는 현재 카드화된 모든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과거 모바일 뱅킹 서비스용 칩의 저장 용량이 16KB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USIM 저장 공간은 향후 기가바이트(GB)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탑재되는 서비스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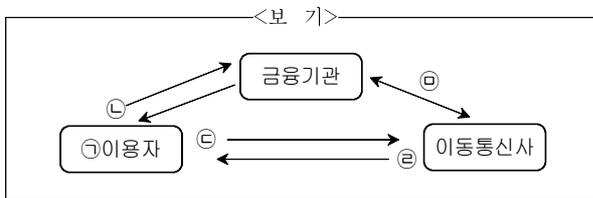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USIM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휴대전화는 통화, 단문메시징서비스, 데이터 전송 등 무선을 통한 온라인 일련도의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 반면 USIM은 휴대전화를 더 이상 온라인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그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휴대전화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생활도구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교통 요금 결제, 멤버십 및 쿠폰 이용 등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USIM의 원칩 멀티 펌션(One Chip Multi Function)은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아직은 ㉞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이동통신사와 17개의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협력하여 USIM 뱅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3세대 휴대전화 이용자는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동통신사에서 금융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개인 계좌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만 하면 '유비터치'라는 USIM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별개의 USIM 칩을 구입해야 한다.
- ② USIM의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 ③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USIM의 소형 CPU에 저장된다.
- ④ 3세대 단말기 사용자는 USIM 칩의 장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⑤ USIM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48.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USIM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세대 단말기가 있어야겠군.
- ② ㉞은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이겠군.
- ③ ㉞은 통신사에 개인 계좌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이겠군.
- ④ ㉞은 단말기에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절차이겠군.
- ⑤ ㉞은 '유비터치'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군.

49. 다음은 어느 학생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위 글에서 언급한 USIM의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ife Report(32)**      홈 || 사진 || 일상 || 명명록      **블로그 세상**

---

■ 기분 좋은 하루    2010년 7월 03일    2010-07-03 21:25:37

모처럼의 휴일이어서 늦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 그래도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아껴두었던 ①새 휴대전화에 칩을 옮겨 끼우고 서둘러 짐을 나갔다. ②버스에 올라 요금을 휴대전화로 결제했다.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일이 많았던 나는 자주 사용하기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늦게 도착 예정, 미안!!'이라는 문자를 친구에게 보냈다. 겨우 도착해서 친구의 얼굴을 보니 다행히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아서 안심했다. 미안한 마음에 점심은 내가 사기로 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 계산을 할 때에는 ③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난 역시 알뜰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다. 표를 끊는데 마침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 극장이었다. 재빨리 ④휴대전화를 꺼내 멤버십 포인트 차감으로 할인을 받았다.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영화를 본 후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기 전 ⑤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기다렸던 만큼 재미있게 보낸 하루였다. 그리고 다음엔 꼭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50. 의미 관계가 ㉞ : ㉞와 다른 하나는?

- ① 언다 : 획득하다                      ② 같다 : 일치하다
- ③ 바라다 : 지양하다                    ④ 바꾸다 : 대체하다
- ⑤ 사람답다 : 인간답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